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07. 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07. 1

허 문 영 (북한연구실장)
김 영 윤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 영 호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 재 진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 현 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 영 태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전반적 특징	1
II. 내용분석	3
1. 2006년에 대한 평가: ‘강성대국의 려명’	3
2. 2007년 과제와 추진방식: ‘핵 억제력 보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	5
III. 분야별 정책전망: 선군정치에 기초한 버티기 전략	13
1. 정치: 선군정치를 통한 김정일 ‘절대화’ 지속	13
2. 경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자력갱생	14
3. 사회·문화: 사회통제와 사상교양 강력 추진	17
4. 군사: ‘평화수호’ 명분의 대남군사태세 강화	18
5. 대남: 협력과 통전의 이중전략	20
6. 대외: ‘핵보유국’ 기반 위에서 실리외교 추진	21
<부록> 2007년 신년 공동사설	23
최근 발간자료 안내	39

I. 전반적 특징

- 2007년 신년공동사설은 전체적으로 전통적 형식과 내용을 반복하였음. 다만 2006년을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해로 규정하고, 2007년에 ‘핵억제력 보유’를 바탕으로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임을 주창한 것은 새로운 것임.
 - 핵문제,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언급 전무
 - ‘선군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고, ‘려명’이라는 용어도 수년전부터 사용됨.
- 대내정책으로는 선군정치 지속강조, 경제발전 주력, 국방력 강화노력 지속, 김정일 우상화, 사회통합을 위한 사상교양 강조 등 예년의 신년공동사설과 큰 차이가 없으나, 금년에는 특히 주민생활 향상에 국가적 힘을 집중할 것을 천명함.
 - 선군정치를 펼쳐온 것이 선견지명 있는 선택이었음을 강조
 - 그러나 대내 경제관리개선조치나 대외 경제개방 강화와 관련된 언급이 없는 바, 국가통제적 자력갱생 노선을 시사함.
- 대남관계에서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2007년 3대 과업으로 제시하여 핵실험이후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따른 위기상황 돌파와 남북경협을 통한 실리확보 그리고 남한 대선과정에서의 적극 개입의사를 보임.
 - 거족적인 미군철수투쟁과 ‘반보수대련합’을 재강조하는 등 대남 통일전선사업에의 적극적 의지 표출
-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자주·평화·친선’의 일반적 기초를 언급하는 가

운데 ‘진보적 인민들과의 연대성 강화’를 강조함.

- 대미관계는 ‘반미자주’ 투쟁과 ‘주한미군철수’를 강조

○ 따라서 2007년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을 기본 토대로 삼고,

- 사회주의 원칙 고수 및 실리 추구에 기초한 대내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 ‘민족중시, 반보수대연합’ 등의 구호를 중심으로 상·하층부 대남 통전 사업과 남한 대선과정 개입에 적극 나설 것이며,

- ‘평화수호’ 구호 하에 미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에 대해서는 협력·협박 병행정책(Tit for Tat)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요컨대 2007년 북한의 대내·대남·대외 정책은 북핵 포기과 개혁·개방 전략을 선택하기 보다는 **선군정치에 기초한 버티기 전략(Muddling Through)**에 근거해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선군정치를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으로 강조

- 사회주의 원칙 고수 및 실리추구에 기초한 경제발전 강조

- 선전·선동수단 총동원을 통한 사상교양사업 강화 강조

- 미국 간섭배격·미군철수투쟁·친미반동보수세력 매장 강조

II. 내용분석

1. 2006년에 대한 평가: '강성대국의 려명'

- 북한은 2006년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 '금지높은 해', '강성대국 건설사에 가장 빛나는 해'로 긍정 평가하였음.
 - 핵억제력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
 - 인민경제 발전, 기술개진, 기념비적 창조물 건설
-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사상, 선군정치 영도하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려명'을 일군 해였다고 평가
 - “김정일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우에서 우리의 전반적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왔다”고 강조
-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 “농업생산 증대전망, 기술개진 추진, 기념비적 창조물, 생산기지 구축” 등
 - 그러나 식량난과 소비재 공급부족 등을 언급하고 있는 바, 경제분야 성과미흡을 스스로 인정
- 사회문화적으로도 '자랑찬 승리의 해'로 자평함.
 - 여자축구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에서의 성과,

- 선군시대 문학예술 부문에서의 성과,
 - 고유한 민속전통과 풍습 만개 등 강조
- 군사적으로는 “핵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수들의 핵전쟁 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핵실험의 성과를 평가함
- 핵보유로 인한 “전쟁억제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이라면서 선군정치 정당화의 실증적 사례로 강조
- 대남관계에서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구호를 들고 내외 호전세력의 광란적인 반통일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림으로써 “자주통일운동의 생활력과 6·15통일시대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된 해로 평가함.
- 북한주도의 ‘통일강성대국’ 건설이 ‘민족사적 흐름’임을 강조
- 대외관계에서 또한 ‘핵 억제력’의 확보를 통해 ‘제국주의자’ 미국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함.
-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의 승리와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 구축을 강조
 - 그 외 대외관계에서 특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없음.

2. 2007년 과제와 추진방식:

‘핵 억제력 보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

- 북한은 2007년을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함.
 - 투쟁과 전진의 구호로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를 제시
 - 김일성 탄생 95돌(4.15)을 ‘민족적 경사’로,
 - 조선인민군창건 75돌(4.25)을 ‘전인민적 경사’로,
 - 5.25교시 40돌, 공청 창립 80돌(8.28)을 기념

가. 정치: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과 체제 결속

- 김일성 출생 95돌 및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인 2007년을 맞아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선군조선의 위대한 변혁의 해”를 만들자고 제안
 - 그 구체적 내용은 1998년 이후부터 인정한 ‘경제강국의 미달성’을 탈피하기 위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매진할 것으로 제시
- 혁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선 오늘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 갈”것을 제창
 -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가는 해,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해”로 조성할 것을 강조
- 추진방식은 이념적으로는 선군사상,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중심의 정치적 통합력, 군사적으로는 핵보유 등을 달성한 상태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등을 제시

- 이것이 추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김정일 ‘두리’에 뭉쳐, 선군사상을 잘 구현하여야 한다고 강조

나. 경제: 부강조국 건설과 자력갱생

- 김일성 탄생 95년을 기념, “부강조국 건설구상이 더욱 활짝 꽃피는 해,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해”로 되게 해야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 2007년을 “선군혁명의 민족사적인 승리와 성과에 기초하여 조국번영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년대”로 지목
 -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공격전 촉구
-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먹는 문제’ 해결을 주된 과제로 설정, 이를 통해 ‘자력갱생’을 실천
 - “강성번영의 새로운 영마루에로 치달아 올라야 할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언급
-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 2007년에도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것임을 강조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관철에서 주인공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을 촉구
 - 과학적 영농방법 도입, 영농물자 및 자재들의 우선 보장 등을 당부
-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의 발전도 과업으로 제시

- 전기·석탄문제를 풀어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한편,
 - 금속 부문에서 철강재 증산,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고 강한 규율과 질서를 구축”,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야 할 것임을 제시
-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부문의 증산에 주력
 -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지 수와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할 것”을 강조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 산업시설 현대화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
 - 2007년 주된 과업을 복한 스스로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것임을 지적
- 서비스 부문의 발전에 대한 관심 고조
 -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상품 공급과 인민봉사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질 좋은 소비품들이 골고루 차례지게 해야”할 것임을 제시
- 이를 위해 경제사업의 내각 집중 및 운영권 강화와 함께 군대의 경제건설 참여를 촉구
 - “인민군대의 애국적 열정과 전투적 기상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전선에서 발휘돼야 한다.”

다. 사회·문화: 체제위기 속 사회통합 강조

- 북한의 최고의 통치이념은 항상 그해 신년사설의 제목으로 오르는데 올해 공동사설의 제목 ‘승리의 신심 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 나가자’에서 드러났듯이 선군사상 또는 선군정치가 올해의 핵심 통치이념으로 계속 사용될 것임을 시사함.
 - 북한은 “조선혁명의 불패성과 빛나는 미래는 선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선군정치를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유력한 사회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함.

- 선군정치와 더불어 경제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는 올해 강성대국의 통치이념도 강조하고 있음.
 - 2000년 ‘신사고’를 강조할 때 “더 높이, 더 빨리”라는 구호를 내걸었듯이 올해도 강성대국 구호와 더불어 “더 높이, 더 빨리”를 내건 것은 경제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주민들을 노동생산성 향상에 동원할 것임을 예고함.

- 북한체제에서 중시되는 통치구호 중의 하나는 반미주의인데 2007년에도 여전히 강조함.

-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이완을 막고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바로잡는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 필승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강조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녹여내려는 원수들의 심리모략전과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려야 한다”며 주민들의 사상이완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는 뜻을 밝혔음.

- 종파주의를 사실상 청산하고 수령 유일 지배의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김일성의 1967년 5월 25일 교시 40돌을 맞아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내치 안정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와 같은 상황에서도 김정일의 지도력으로 체제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정일의 위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체제통합을 독려함.

- 핵보유 강조로 자긍심 고취와 내부단결을 도모함.

- 사회문화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정권에 대한 충성 강조임.
 - “최고지도자에 대한 결사옹위정신으로 충직하게 받들도록” 강조
 - 내부의 경제난, 핵문제 관련 미국과의 대결, 남북교류의 급증 등의 대내외적 긴장과 위기의 상황속에서 사상교양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며 사상교양을 담당하는 기관의 혁신적 역할을 강조함.

라. 군사: 선군 기치 하 국방력 강화 지속

(국방공업발전중심전략에서 전투역량강화로)

- 2007년에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 강화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면서 군사력 강화의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함.
- 군사력 강화의 기본지침은 지난 10여년간 ‘최악의 역경’을 선군으로 헤쳐 나왔듯이 “선군 사상과 로선을 당과 혁명의 변함없는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구체적인 추진방식은 북한군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강화, 전투준비 및 전투력 강화,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 역할 강화 등임.
 - 군사력의 기본역량인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 군사정치사업의 중심으로서 ‘오중흡7연대칭호쟁취 운동’ 심화 발전
 - 전투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혁신
 -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관병일치, 군민일치”를 더욱 발휘하여 전군을 하나의 생사운명 공동체화
 - 전투정치훈련의 강화와 모든 훈련의 과학화, 정상화
 - 부대지휘관리 개선과 군기 철저 확립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전선에서 위력 발휘
 - 국방공업 발전으로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 강화

마. 대남: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 3대과업 제시

- 2007년 대남사업 구호로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를 제시함.
 - ‘자주통일위업의 전성기’를 펼쳐야 함을 강조
-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3대과업으로 제시함.
 - 북한은 1972년부터 고수해 온 ‘조국통일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김일성이 제시한 ‘불변의 지침’으로 강조하고, 이를 변형하여
 - 2005년에는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강조,
 - 2006년에는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을 강조.

- 특히 이번 3대과업에는 이전과 달리 구체적 실행을 강조하는 용어(··중시, ··수호, ··실현)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표출함.
 - ‘민족중시’를 ‘외세에 의하여 분열과 전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기본립장과 좌우명’으로 강조하고, ‘우리 민족 내부분쟁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 배격’ 주장
 - ‘평화수호’를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로 규정하고, ‘남조선강점 미군 철수투쟁’ 강력 전개 주장
 - ‘단합실현’을 ‘민족의 생존방식과 통일위업의 원동력’으로 강조하고,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통일운동단체의 높은 단계의 연대연합과 ‘반보수 대련합’ 구축을 통해 금년 대선에서 ‘친미반동보수세력’ 매장 주장

바. 대외: ‘반제 자주 투쟁’ 견지와 ‘인민외교’ 강화

- 오늘의 세계정세 흐름을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과 강권은 실패”하고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함.
- 이를 배경으로 2007년에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자주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것”과,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아래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과제로 제시함.
 - 자주성 강조 및 북한 외교정책 원칙인 자주·평화·친선을 언급한 것은 예년과 유사하였으나,
 - 금년에는 특히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연대성 강화’를 들어 ‘인민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바,

- 국가 간 외교 추진 환경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중국·러시아 등 동맹 또는 우호국가와의 관계나 미국·일본 등 적대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북한이 보는 일반적 대외관계를 간략하게 언급한 것으로 그침.
 - 특히 핵 억제력의 추가 강화 등에 관한 언급이 없음.
- 그러나 군사 분야와 대남관계 분야를 언급하면서 미국에 대한 투쟁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강력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군사훈련 강화 및 경계 강화를 언급하면서 “미제침략자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무자비하게 격파 분쇄”할 것을 강조
 - ‘민족중시’ 강조 아래,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
 - ‘평화수호’를 명분으로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증강책동”을 배격하고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

Ⅲ. 분야별 정책전망: 선군정치에 기초한 버티기 전략

- 2007년 북한의 대내·대남·대외 정책은 북핵 포기과 개혁·개방전략을 선택하기 보다는 선군정치에 기초한 버티기 전략(Muddling Through)에 근거해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1. 정치: 선군정치를 통한 김정일 ‘절대화’ 지속

- 2007년에도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이념·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한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지속될 것임.
 - 경제난 및 미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는 한, 주민에 대한 군사문화적인 생활 강요는 지속
- 2006년 공동사설에서는 강조되지 않은 ‘강성대국의 려명’이 등장함에 따라 2007년에는 이 용어가 주민 사상통제의 수단이 될 것임.
 - 북한은 이미 2001년부터 ‘혁명의 려명’ 등을 사용
- 2006년 공동사설에서 언급된 ‘혁명의 3·4세’ 용어가 언급되지 않음에 따라 금년에도 김정일 후계문제는 대두되지 않을 것임.
- 2007년은 김정일 출생 65돌(2.16), 김일성 출생 95돌(4.15), 김정일 공화국원수 추대 15돌(4.20), 인민군 창건 75돌(4.25), 김일성 ‘5·25 교시’ 40돌, 공청 80돌(8.28),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10돌(10.8) 등 다양한 ‘끼어지는 해’를 맞아 김정일 권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행사를 개최할 것임.

- 김정일 개인의 위대성 부각 작업이 보다 강화될 전망
- 특히 '5·25 교시'가 강조된 것은 경제강국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간부들의 부정부패,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2007년에는 김정일 노선 즉, 경제강국 건설에 소극적인 관료들을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중앙당검열 작업'이 있을 가능성
 - 1967년 5월 25일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이효순·김도만 등 이른바 '갑산파'가 숙청되었고, 이것은 김정일이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한 결정적 사건

2. 경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자력갱생

가. 대내 경제부문: '우리식' 경제건설

- 군사강국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전망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실험 후 “앞으로는 경제사업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 바,
 - 재래식 무기 확충에 따르는 인적 자원과 자금을 경제건설과 주민생활에 돌리는 시도를 전개할 가능성 존재
-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도를 통한 “우리식 경제건설 사상과 정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 자력갱생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대외적 경제제재에 대처하는 정책 견지

-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사업 등 경제외적인 부문의 투자도 병행, 대내적 기강 확립에 일조
 -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강조

- 경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당이 중심이 되고, 내각이 지원하는 체제가 될 것임을 예고함.
 - “우리 당의 사명과 투쟁목적에 맞게 경제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해야”
 - “내각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쥔 중대한 위치와 사명에 맞게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함을 지적

- 내부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경제관리를 실리가 나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한다”을 강조하고 있는 바,
 -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고수하려는 의도 견지

나. 대남경제부문: 대남 경제협력 활성화 재개

- 핵문제 해결 과정상 전개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유엔 제재 및 금융 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대남 경제협력에는 적극 임하려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민족중시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 “북남관계와 조국통일 운동을 철저히 <우리민족끼리> 리념에 맞게

발전공고화 해나가야 함”을 언급

- 따라서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획득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됨.
 - 4월을 전후하여 남북장관급회담에 나와,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곡물 및 비료지원을 요구하고,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남한의 민간기업 대상,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임.

-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먹는 문제(식량), 경공업 혁명(원자재), 전력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 강화 등은 남측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바,
 - 생산기술과 관련된 대남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 기술획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 개성공단 등 대남 경협 강화에 따라 노동력이 효율적 이용 및 관리 강화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노력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 “노동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노력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원가를 줄이며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주요한 흐름으로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다. 대외경제부문: 대중국 경제협력 강화

- 대외경제개방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음.

-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경제 상황으로 보아 2007년 중국과의 변경무역 등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큼.
 - 중국 동북 3성, 특히 지린성과 창바이 「조선족자치현」에 설립된 「중·조무역회사」를 통한 변경무역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됨.
 - 「중·조무역회사」는 중국과 북한간 친선 증진과 변경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2006년 2월 설립, 현재 북한의 37개 무역회사와 연계, 투자 유치와 무역교류, 상담 및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 북한 지역 에너지 자원의 대중국 반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큼.
 - 2006년 중국 단둥을 경유한 북한산 무연탄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에도 크게 증가, 동기간 동안 전체의 60%이상이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남.

-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회피 수단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금거래의 활성화를 시도할 가능성 존재
 - 북한은 196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런던 금시장에서 ‘굿딜리버리’ 자격을 유지
 - 런던 소재 「조선개발투자펀드」를 통한 금광업 사업 추진 등

3. 사회·문화: 사회통제와 사상교양 강력 추진

-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안정 정책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회문화 분야에서 사회통제와 사상교양을 어느 해 못지않게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의 수해 후유증, 유엔안보리 제재로 인한 경제난 가중 등 상

황 악화 속에서 사회질서의 이완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통제와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사상사업에서의 형식주의 타파, 긍정적 모범따라배우기, 문화예술 작품의 정치적 동원 등의 전통적인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임.
- 핵무기 보유를 소재로 다양한 정치집회, 군중시위 등의 정치적 동원을 활용할 것임.

○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작업을 강화할 것임.

- 핵무기 보유, 미국과의 대결 등을 소재로 한 선군사상의 이론적 개발 작업 등을 통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경력에 상응하는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이론화·사상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을 건립할 것으로 전망됨.

- 공동사설은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비롯한 주요대상 건설을 새세기에 맞게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4. 군사: ‘평화수호’ 명분의 대남군사태세 강화

○ 작년과 비교해 볼 때, 경제건설의 중요성이 국방공업발전 보다 강하게 지적되고 있는 바, 이는 핵실험 이후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경제력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지를 반영함.

- 신년사 내용에서 작년의 경우 군사부문 다음으로 경제부문이 서술되고 있는 반면 올해는 이와 반대임
- ‘선군정치’와 ‘국방공업발전’ 관련 언급 다소 축소

- 핵실험 이후 ‘국방공업발전’을 통한 군사력의 물리적 기초를 핵무장 능력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군대에 대한 전투준비와 전투력 제고를 위한 정치사상적 훈련을 강조할 것임.
 - 정치사상적 군대훈련 강화를 통하여 김정일 지도부에 대한 충성유도 노력 강화에 초점

- 대남 차원에서 ‘평화수호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군사 훈련, 주한미군 군사력 이동 및 증강 등 일련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우리민족을 위협하는 군사적 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증강책동”이라 비난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6년도 북한의 군사적 행동(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은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2007년도에는 남한을 목표로 이루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렇게 볼 때 남한 대선의 해인 2007년에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이 군사적 모험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이러한 물리적 대응은 「한반도 전쟁 분위기 심화 → 이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전가 → 반미주의 확산 → 친미 보수세력 타도 분위기 확대 → 남한의 대선개입」을 추구할 것임.
 - 특히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이를 미국에 대한 책임 전가 기회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 강조 → 이에 대한 물리적 대응 → 한반도 전쟁분위기 고조 →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이분법의 2007년 대선구도 창출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대남: 협력과 통전의 이중전략

- 북한은 변형된 조국통일3대원칙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추진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북핵문제 관리와 남한대선 개입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활용하여 ‘통일강성대국’ 건설 토대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은 ‘민족중시’와 ‘우리 민족끼리’ 담론을 통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안전판 확보와 더불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낼 것임.
 - 북한은 당분간 김정일정권의 사활과 관계된 대미협상에 주력할 것이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강경화되어 북한 체제안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경우에 대비하는 한편 식량 및 경제난을 최소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남관계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임.
- 북한은 ‘평화수호’ 기치하에 대미 핵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김정일 정권에 대한 경제, 정치, 군사적 안전보장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단초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강경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김정일정권의 위기상황이 도래하게 될 경우, 북한은 이를 한반도위기 상황으로 조장한 후, 이 같은 위기조성자로 미국을 비난하는 한편 남한 대선 정국을 맞아 소위 ‘친미반동보수세력’ 제거 투쟁을 전개하면서 적극적인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강력 선동할 것임.
- 북한은 ‘단합실현(단결)’ 명분하에 2007년 남한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남 선전선동과 통전사업에 적극 나설 것임.

- 이를 위해 북한은 '6·15 북남공동선언'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민족단합 명분으로 '하층통일전선전술'이 보다 강화될 전망

○ 다만 2006년과 달리 '아리랑축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2007년에는 아리랑축전을 매개로 한 통일사업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6·15 공동선언, 8·15행사, 2008년 북경올림픽공동선수단 구성논의 등을 통한 대남 유화정책이 예상됨.

-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군사실무회담 개최 및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남북간 특사교환 등 각종 대정부 유화정책도 병행될 전망

○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민족공조차원'의 대응을 위한 '반미·반전·반핵' 운동 전개를 남한 진보세력에게 촉구하는 한편, 남한내 이념투쟁 선동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6. 대외: '핵보유국' 기반 위에서 실리외교 추진

○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판단아래 2007년에는 경제건설에 특히 역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외부자원 동원을 위한 실리외교 추진이 필수적임.

- 핵실험 이후의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완화 또는 철폐시키기 위해 ‘핵보유국’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비핵화를 계속 추구한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핵억제력’을 확보했으므로 6자회담을 먼저 무산시키는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임.

- 특히 대미관계에서 경제건설을 위한 외부 자원 동원 차원에서 미국을 회담 지체의 원인으로 돌리면서 6자회담 재개 자체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
 - 대미협상에서 ‘자주권’, ‘민족공조’ 등을 반미 연합전선 구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입장을 견지
 - 그러나 미국과의 극단적인 대결구도는 경제건설을 위한 자원동원에 더욱 제한을 가져다 줄 것이므로 미국 및 남한의 태도를 관망하면서 실리 추구적인 접근태도를 보여줄 가능성 있음.
 - 동시에 대미관계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반미’분위기 확산에 활용.

-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과의 국제적 연대 강화를 추진하면서, 서방국가들에 대해서도 실리 획득을 위한 ‘인민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인민외교’는 유엔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이자, 국제적 신뢰 악화를 최소나마 복구하기 위한 수단

<부록> 2007년 신년 공동사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당보·군보·청년보의 공동사설)

(2006. 1. 1, 09:00, 중평방)

지금부터 새해 주체96(2007)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조국강산에 승리와 번영의 기상이 약동하고 있다.

우리 민족사에 찬란히 빛날 새해의 보람찬 진군이 시작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일대 비약을 이룩한 자랑과 기쁨을 안고 새로운 창조와 전진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해 주체 95(2006)년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로 수놓아졌다.

장구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연대기에서 2006년처럼 나라의 지위가 당당한 강국의 높이에 오르고 민족의 존엄이 힘있게 떨쳐진 때는 없었다.

지난해의 특기할 사변들과 역사적 승리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다. 지난해에 선군사상, 선군정치 승리의 만세소리가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

조선혁명의 불패성과 빛나는 미래는 선군에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백전백승을 떨쳐왔으며 나라의 최고 이익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가져왔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패국력을 갈망해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수들의 핵전쟁 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전쟁억제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으로 되고 있다.

지난해의 자랑찬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10여 년간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지난해는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린 긍지높은 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펼쳐준 승리의 여명에서 커다란 신심을 얻고 영웅적 투쟁을 벌여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선군혁명 총진군의 불길 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경제건설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농업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선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은 나라 도처에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졌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패국력을 갈망해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수들의 핵전쟁 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전쟁억제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으로 되고 있다.

지난해의 자랑찬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10여 년간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지난해는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린 긍지높은 해였다. 우

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펼쳐준 승리의 여명에서 커다란 신심을 얻고 영웅적 투쟁을 벌여 모든 분야에서 자랑스런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선군혁명 총진군의 불길 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경제건설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농업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진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온 나라 도처에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기지들이 훌륭히 꾸러졌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 위에서 우리의 전반적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왔다. 지난해 트드결성 80돌을 성대히 기념한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선혁명의 계승성이 확고히 고수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온갖 난관과 고생을 곳곳이 이겨낸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심혈은 그 무엇으로서도 헤아릴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 나갈 때 백전백승하며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신념을 더욱 철석같이 간직하였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만난시련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2006년을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사의 가장 빛나는 해로 되게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혁명실록과 불멸의 역사적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새해 96(2007)년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이 하늘 아래, 이 땅위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95돌을 일대 민족적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민대중의 자주 위업과 더불어 영생하시는 주체의 태양이시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와 누리에 존엄 떨치는 선군조선의 오늘의 번영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하나로 잇달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돌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그 완성을 위한 만년기초를 마련하여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여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위력을 떨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

우리는 경사스러운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구상이 더욱 활짝 꽃피나는 해,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역사는 군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 오신 선군영도의 역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운명개척과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을 선군혁명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를 시위하는 전인민적인 경사로 빛내어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 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의 새로운 연대는 선군혁명의 민족사적인 승리와 성과에 기초하여 조국번영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연대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지도사상이 있고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선군혁명의 불길 속에서도 다져진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다.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된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 진군을 더

속 과감히 벌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공격전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 경제강국 건설은 현 시기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강성대국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기 위한 보람찬 역사적 위업이다.

우리는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선군조선을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으로 꽃피워 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진군의 주되는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선을 다그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것이다.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한다.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짓수와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품들여 마련하여 놓은 축산기지, 양어기지, 기초식품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상품공급과 인민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질 좋은 소비품들이 골고루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 일꾼들은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근로자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어야 한다.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잘 누리게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이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선행부문이 앞서 나가고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야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활성화되게 된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긴장한 전기, 석탄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성을 강화하고 기술개건을 적극 다그쳐 철강재 생산을 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 늘어나는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4대 선행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국가적 힘을 돌리며 온 나라가 이 부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제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에네르기 및 자원개발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며 나라의 자원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여야 한다. 채취, 기계, 화학, 건재, 임업부문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선군시대의 대기넘비적 건축물들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모든 건설을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에 맞게 하며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들과 온 나라 농촌들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잘 꾸리고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 조국강산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사상과 이론, 방침들은 경제강국 건설의 확고한 지침이다.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선군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우리 당의 경제사상과 이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지도 단위들은 우리 식의 경제건설 사상과 정책이 그대로 구현된 전형들이다. 현지도 단위들의 귀중한 경험과 생동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고 일반화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이 땅 위에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일떠세운 원동력이

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변함없는 투쟁방식이다. 강성변영의 새로운 영마루에로 치달아 올라야 할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철저히 주체의 힘으로 변영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세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하여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미 마련해놓은 튼튼한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드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제재, 봉쇄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경제강국 건설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최신과학기술이 결합되면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짧은 기간에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강성대국 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기술개건도 생산과 경영활동도 과학기술 인재들을 적극 발동하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강성대국 건설을 떠메고 나갈 유능하고 실력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며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창조와 건설에서 지식은 최대의 재부이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혁명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 강화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선군은 조국과 인민의 생명이며 민족의 존엄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의 선군사상과 노선을 당과 혁명의 변함없는 지도적 지침으로 역세계에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 조선의 명맥을 지켜 나가던 시련의 나날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피로써 쟁취한 선군혁명 전취물들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해야 한다.

자주적 국방력에서 기본 역량을 이루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군사강국의 기둥이며 조국번영의 강력한 전위대이다. 인민군대에서는 건군 75돌을 맞이하는 올해에 전투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 장군님들의 슬하에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온 최정에 혁명강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

오중흡7연대 칭호 쟁취운동을 군사정치사업의 총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군력강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켜 전군을 혁명의 수뇌부를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는 불사신의 총폭탄 대오,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역세계 준비시켜야 한다.

최고사령관의 혁명사상으로 전군을 일색화하고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확고히 세우며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품모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을 높이 발휘하며 전군을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의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용암처럼 끓어 번지고 원수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서릿발같이 솟구치게 하여야 한다.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드세게 벌이며 모든 훈련을 과학화, 정상화하여 우리 식의 전법으로 적을 타승할 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력을 억척같이 다져야 한다.

모든 장병들이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과 격동상태를 견지하여 조국의 전초선을 철옹성같이 지키며 미제 침략자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무

자비하게 격파 분쇄하여야 한다. 부대지휘 관리를 개선하고 군기를 철저히 확립하여 강철같은 군사규율과 정규화적 면모를 갖춘 인민군대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애국적 열정과 전투력 기상은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전선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어야 한다. 인민군 장병들은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다진 혁명적 군인정신의 위력을 폭발시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한다.

세상에 없는 우리의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야 한다. 인민은 원군을 하고 군대는 원민을 하여 군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사중시기풍을 계속 철저히 세워 모두가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

국방공업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정치사상 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사회주의는 단결의 힘에 의하여 건설되고 번영한다. 준엄한 반제투쟁에서나 조국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일심단결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혁명의 수뇌부는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이며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준엄의 상징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수뇌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야 할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오직 영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하는 열혈투사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5.25교시 40돌이 되는 올해에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우리 당의 선군혁명역사를 깊이 체득하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인민답게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를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포부와 내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 사회주의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신심 드높이 전진하는 불굴의 인간, 낙천적인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우리 사상이 제일이고 우리의 문화와 도덕이 제일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은 치열한 계급투쟁 속에서 진행된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녹여내려는 원수들의 심리모략전과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개 버려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상사업을 선군시대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해 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발현되는 긍정적 모범을 적극 찾아내고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과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선전 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과 기자, 언론인들은 사상사업과 문화정서 교양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여 온 나라에 낙천적인 생활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전투승리의 결정적 담보는 전당 전국 전민을 조국변영을 위한 총진격으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있다.

당을 강화하고 당 조직들의 전투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조선노동당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당의 영도를 떠나서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번영도 인민의 행복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은 전당에 영도자의 사상체계와 영도체계만이 확고히 서 있는데 있다.

전당이 영도자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높은 조직성, 규율성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 당이다. 모든 당 조직들은 우리 당의 사명과 투쟁 목적에 맞게 경제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당 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 사업이 인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심장을 발동하는 산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은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중의 정치사상적 준비도와 성격, 사상감정과 심리에 맞게 사업하는 것을 체질화하여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일꾼들이 있다. 당 일꾼들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자기는 잠을 못자고 차례지는 것이 적어도 인민을 위하여 한 몸을 내대고 아글타글 애쓰는 일꾼이 혁명하는 시대 일꾼, 인민의 참된 충복이다.

올해의 총진군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자면 각급 당 조직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벌이며 근로단체 조직들을 적극 발동하여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는 데서 내각을 비롯한 경제기관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각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쥔 중대한 위치와 사명에 맞게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경제관리를 실리గా 나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고 경제적 공간을 옹계 활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노동행정사업을 짜고 들어 나라의 노력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누구나 다 맡은 초소에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 뛰고 또 뛰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 일꾼들은 새로운 종자를 찾아 쥐고 초행길을 걷는 선구자, 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올해의 총진군은 청년들을 전례없는 영웅적 투쟁과 위훈으로 부르고 있다. 청년들은 앞날의 강성대국의 주인공들이며 당의 위업을 실현하는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이다.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은 공칭 창립 80돌을 맞으며 조선청년운동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청년운동의 전통을 견결히 고수하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

를 빛내어야 한다.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모든 청년들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제일 결사대로 키워야 한다. 새 세대 청년들의 계급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주어 그들이 이색적이며 불건전한 사상과 생활풍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에 달려 나가 청춘의 기개와 위훈을 떨쳐야 한다. 청년들은 당과 조국 앞에 큰 공을 세우고 인민의 찬양을 받는 청년영웅, 애국청년이 되어야 한다.

직맹, 농근맹, 여맹 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며 그들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60여년의 분열역사가 흘러온 이 땅위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 지난해에 자주통일운동의 생활력과 6.15통일시대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구호를 들고 내외 호전세력의 광란적인 반통일 전쟁책동을 짓부서 버리며 조국통일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왔다.

하나의 핏줄로 이어진 우리 겨레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닌 존엄 있는 민족이며 통일강성대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민족사적 흐름을 멈춰세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지난해의 현실이 다시금 확증해 주었다.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위업의 불변의 지침이며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올해 온 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들고 나가야 한다.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민족중시는 외세에 의하여 분열과 전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기본입장이며 좌우명이다.

그 어느 외세도 그 어떤 이념도 민족의 이익보다 앞설 수 없다. 모든 문제에서 민족의 의사와 이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함없이 자주적 대외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원칙

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을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맞게 발전
공고화해 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자부
심을 가지고 주체성,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며 우리 민족 내부분쟁에 대
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평화수호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평화는 조국통일과 민족공
동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오늘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통일로 나아가는 조선반도의 정세 흐름을 차단하고 전조선에 대한 지
배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반공화국 반통일 전쟁책동에 미친 듯이 매달리
고 있다.

미제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
당하고 있다. 평화수호 투쟁은 민족의 생존투쟁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승리는 민족적 자주권을 목숨 바쳐 고수하려
는 우리 겨레에게 있다.

전민족이 반전평화옹호 투쟁에 떨쳐나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군사적
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증강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을 똑똑히 꿰뚫어 보고 전쟁의
근원으로 되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
해 나가야 한다.

전민족의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한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
며 통일위업의 원동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가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투쟁은 민족대단합 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보수세력은 외세를 등에 업고 매국반역
적인 기도와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사
회주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

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번영의 길을 열어준 희망의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막아도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여야 하며, 그것을 거세 말살하려는 온갖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필승불패의 위력과 애국 애족적 성격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온 겨레는 선군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과시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선군정치를 견결히 옹호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업 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위업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정세의 흐름은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과 강권은 실패를 면할 수 없으며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 자주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강성대국의 여명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선군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다져진 천만 군민의 힘과 열정이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다.

김일성 조선은 위대한 사랑으로 존엄 높고 일심단결로 위력하며 강력한 군력으로 백승 떨치는 무적필승의 사회주의 강국이다.

그 어떤 힘도 사회주의 낙원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릴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용기백배 기세 드높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높은 봉우리를 향
하여 총진군 하자. [끝]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운,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준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1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5, 팩스 : 901-2544
인쇄처	도서출판 늘품 전화 : 2275-5326
인쇄일	2007년 1월 일
발행일	2007년 1월 일
